

보이스피싱 알면서도 조직계좌에 송금한 경찰관...3년 구형

합의금 빙자 3000만원 빌린 후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 검찰 "진정으로 교훈 얻을 만한 양형인가...가능 어렵다" 피고인 "아이들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2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사회할 기회를 주고자 피고인을 설득하기도 했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보다는 부당한 방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피해가는 것에만 신경 썼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말해 3000만원을 빌린 다음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하기도 했다"며 "진정으로 교훈을 얻을 만한 양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기조차 어렵다.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사망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도 형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공판에 참석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저는 신용불량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대질조사 때 들었는데 제가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 약 올린다는 표현을 썼더라"며 "진짜 합의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합의를 결렬하며 제게 '자기는 초범이고 형사 쪽에서는 더 잘 아니까. 벌금형 받고 끝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당시 경찰관인지도 몰랐고 일반 회사원인 줄 알았다. 합의 의사가 없는지 연락 한 통 없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을 믿고 있었다. 그나마 검찰에서 수사해 처리해서 다행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꼭 엄벌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업 대를 시도 중 A씨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했음에도 피해금을 돌려 주지 않고 보이스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그늘막에서 신호 기다리는 시민들

2일 대구 서구 대구서부경찰서 신호등 앞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아래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 아파트 단지서 잇단 10대 차털이범 검거

검거 도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는 표창·신고포상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데 도움을 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표창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시도한 혐의(절도미수·특수준조물침입)로 A(14)군 등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4일 새벽 시간대 광산구 신가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보며 절도 행각을 벌이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의 범행 과정에는 촉법소년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한 뒤 나머지 일당의 소재를 추적, 임의동행해 검거했다. 앞서 광산경찰은 지난 3월 20일에도 이 아파트

단지에서 차털이 행각을 벌인 B(14)군을 붙잡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군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에서 2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B군은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뒤 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에 도움을 준 이 아파트 경비원 2명에 대해 지난 2일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영선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잠기지 않은 차량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문을 반드시 잠그고 후사경도 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청소년 범죄 근절 프로그램도 진행중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일익이 폐해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형택기자

전국 PC방 돌며 현금 600만원 훔친 30대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

PC방을 돌며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

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남구의 PC방 계산대 현금출납기에서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9개

PC방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훔쳤다. PC방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타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

나주 야산 불...임야 0.01ha 소실

2일 낮 12시51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야산에서 불이났다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산 중턱 묘지와 인근 임야 0.01ha가 타고 그을렸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 당국은 묘지 인근에서 불길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